

세월호 '외부 충돌설' 사실일까?

세월호 직립에 성공하면서 한 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외부 충돌설'에 대한 사실 여부가 재조명되고 있다.

모습을 드러낸 선체 좌현에서 파손이나 훼손 등 충격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 제기된 선박이나 압초 잠수함 등 외부 물체의 충돌설은 사실상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외부 충돌설은 괴물체 충돌 후 좌초했다는 설부터 국정원 개입, 잠수함 충돌설 등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지난 2016년 누리꾼 '자로'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다룬 다큐멘터리 '세월호 X'에서 세월호가 외부 물체의 충돌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잡힌 레이더 영상을 근거로 세월호가 J자 형태로 급격하게 방향을 바꾼 뒤 또 다른 물체가 레이더에 잡혔다고 주장했다.

해당 물체는 세월호 6분의 1에 달하는 크기로, 레이더에 선명하게 잡혔다는 점에서 세월호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가 아니라 거대한 금속 물체로 봐야하고 조류보다 빨리 움직였던 점을 감안해 해당 물체는 '잠수함'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군 당국은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은 평균 수심이 37m로 잠수함 운용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인근 해역에서 작전이나 훈련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외부 충돌설에 대한 진위는 세월호 선체 외관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3년 만에 인양되면서 외부 갑판 및 외관에 구멍이나 함몰 등 잠수함 충돌을 입증할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잠수함 충돌설을 비롯한 각종 외부 충돌설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자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당장 세월호를 똑바로 세워 물속에 잠긴 좌현 쪽을 보고 싶다"는 글을 남겼다.

그의 말마따나 잠수함이 7000톤급 세월호와 충돌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파손 없이 잠수 상태에 사고 해역을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시 구조를 위해 사방에 많은 선박들이 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가 침몰할 정도의 충돌이라면 선체가 뒤틀리거나 뿔리는 등 큰 파손 흔적이 보여야 했지만, 세월호 인양 당시 군데군데 선체에 굽힌 자국만 있고, 원형이 크게 변형되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원점에서 재

외부 물체 충돌...좌현 외관 손상 흔적 없어

누리꾼 '자로' 잠수함 충돌 주장 논란 촉발

선조위 "외부 충돌 가능성 공식 조사 착수"

조사하고 있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외부 충돌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앞서 선조위는 지난달 잠수함 등

외부 물체와의 충돌설(외력설)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선조위는 세월호 좌현에 있는 핀 안정기가 최대 작동 각도인 2도를

두 배 이상 초과한 50.9도 비틀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중 물체가 충격을 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영민 1소위원장은 "선조위가 외력설을 논의하는 것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세월호의 마지막 항적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모 심는 꼬마 농부들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아차산 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린 꼬마농부 모심기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이 체험본에 모를 심고 있다.

세월호 미수습자 찾는다...“7월초 수색 개시”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에서 추진하는 선체직립을 완료한 후 미수습자 수색을 내달부터 8월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상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수습조사지원과장은 "직립 이후 6월 14일까지 보강 등 선조위에서 할 예정이다. 직립을 완료하면, 빔 철거 등 보강 작업을 해야 하는데 6월 14일까지"라면서 "이후 수색 계획을 수립하는데 3주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입로 개설, 조영 설치 등 수색 준비 작업을 3주 정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미수습자를 수색하는 작업이 5주간 진행된다"며 "7월초 수색에 착수하면, 5주면 끝날 것 같다. 8월 중순까지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에 따르면 미수습자 수색 진입로 시공, 조영

설치 작업구 천공 등 3주 간의 수색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수색이 약 5주간 진행된다.

최대한 현 선체 상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작업 수색 및 수습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선체 절단 등이 필요할 경우 미수습자가족, 416가족협의회 및 선조위 등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기로 했다.

수습 절차는 진출입로 확보 후 진출 수습(수작업) 및 진출 반출, 진출 세척 및 수습(수작업), 진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4월 세월호 인양 후 선체 객실·화물구역, 기관실 수색과 침몰해역 수중 수색을 통해 미수습자 9명 가운데 고창석·이영숙씨·히다윤·조은화양 등 4명의 유해를 수습했다. 단원고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교사, 권재근씨

와 아들 최규근 등 5명의 유해는 아직 찾지 못했다.

한편 현장수습본부는 현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지원사무소 체제를 확대해 가족 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한다.

필요시 신원확인, 가족지원 등의 업무에 관계부처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세월호 직립용역 완료 시점부터 8월까지 약 2개월 간이다.

수색시 미수습자 가족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현장 거주를 희망하는 미수습자 가족의 숙소, 식사 등은 해수부, 전남도 및 북포시 공동으로 협의해 준비 중에 있다. 미수습자 가족이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계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최남규 기자

일했던 편의점서 점장행세 20대 돈 훔쳐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속이고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20분께 광주 북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36)씨에게 자신을 점장이라고 속여 일을 시킨 뒤 간이 금고에 든 6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이 편의점에서 6개월 간 일했던 A씨는 최근 취업한 B씨에게 "내가 점장인데, 물품창고에서 물 좀 꺼내와라"고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일을 막 시작한 사실을 알고 정장 차림으로 편의점에 찾아가 사장 행세를 했으며, 5만1천원을 따로 보관 중인 간이 금고를 뺀 것으로 조사됐다.

'쫓아보니 교도소' 20대 상습 절도범 검거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0일 절도 혐의로 이모(29)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2시50분께 군산시 경장동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이남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하며 추적하던 중 다른 범행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이씨를 찾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며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에 비해 여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불법 취업 알선 후 소개비 챙긴 일당 구속

태국여성들을 전국 마사지업소에 불법 취업시킨 뒤 소개료 명목으로 수익금을 받아 챙긴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여성 수습명령 전국 마사지업소에 불법 취업 알선 후 소개비로 2여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브로커 A(3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태국여성들에게 무자격 안마시술행위와 성매매 행위를 시킨 혐의(의료법위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마사지업소 임주 C(42·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채류 태국인 여성 D(44·여)씨 등 3명은 강제 출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태국여성 65명을 전국 마사지 업소에 취업을 알선 후 소개비로 1억6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44·여)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태국여성 32명을 전국 마사지 업소에 취업시킨 뒤 소개비로 920만원을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태국은 무사증 발급이 가능해 관광객으로 위장하면 쉽게 국내 입국할 수 있다.

최근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태국 마사지업소가 성행하고 있어 브로커들은 거액의 알선 소개비를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브로커가 태국여성 1인당 업무로부터 받은 소개비 중 120만~130만 원을 태국 현지 브로커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 받고 보이스피싱 가담한 40대 구속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은 피해자의 돈을 수거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받아 송금하려 한 혐의(사기)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남창동 남대문시장에서 기존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은 B(49·여)씨의 900만 원을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조직에서 보낸 현금을 수거해 송금하면 금액의 2%를 준다는 고액액리이트 광고 모집 메시지를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뉴시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문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